

# 생산·투자 두달째 뒷걸음...소비만 증가

지난해 12월 생산과 투자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소비만 홀로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및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가 동반 7개월째 하락했다. 두 지표가 함께 이저러 긴 기간 동안 하락한 건 통계청이 경기 순환기를 따지기 시작한 1972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全)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지난해 9월 -1.4% 감소했다가 10월 1.2% 오르며 반짝 증가했던 생산은 11월(-0.7%)에 재차 감소세로 돌아섰었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반도체 등이 줄어 전달보다 1.4% 감소했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수출이 줄고 관련 자동차 부품의 국

통계청,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 발표  
동행·선행 경기 7개월째 동반 하락 '저성장 기조'  
소매 판매, 전월比 0.8%↑...자동차, 차량연료 호조

내·외 수요가 부진했던 탓에 -5.9% 감소했다.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재고 조정으로 서버용 디램(DRAM) 등에서 수요가 감소했고 모바일용 메모리 수요도 줄었다. 지난해 7~9월 이후 재차 2개월 연속 뒷걸음질 친 것이다.

이에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전달보다 0.4%포인트(p) 하락한 72.7%를 기록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자동차, 차량 연료 등 판매가 늘어 전달보다 0.8% 증가했다. 전월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연말 가격 할인 등으로 판매가 호조를 보였던 덕이다.

설비투자는 0.4% 감소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5.1%) 투자가 늘었지만,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2.4%) 투자가 감소한 탓이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2.4% 늘었다. 건축(2.1%)과 토목(3.3%)에서 모두 증가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p 하락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전월보다 0.2p 하락했다.

특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쳤던 지난 1997년 9월부터 1998년 8월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2012년 이후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폭은 크지 않지만 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업생산은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연간 증감률은 2000년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다. 광공업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0.3%p 상승했다.

소비는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2011년(4.6%)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설비투자는 4.2% 줄었다. 설비투자 감소 폭은 지난 2009년(-9.6%) 이후 9년 만에 가장 크다.

건설기성은 건축(-4.1%)과 토목(-7.9%)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5.1% 감소했다. 건설수주가 -4.5% 줄었는데 이는 2013년(-12.9%)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생산과 투자가 지난해에 이어 조정받았으나 소매 판매는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건설투자는 5개월 만에 증가했다"며 "연간으로는 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증가세가 확대됐다. 다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러 "소비 흐름 등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려는 한편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다음달 중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전통시장서 제로페이로 결제하세요"

중기부 광주전남청, 남광주시장 제로페이 시범지역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직무대리 정재경)은 설 명절을 맞아 30일, 남광주시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6개 지원기관 및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하여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본격 도입에 따라 이번 장보기 행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6개 지원기관 및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하여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본격 도입에 따라 이번 장보기 행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6개 지원기관 및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하여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중기부 광주전남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대형마트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 구입이 가능하다"면서, "올해 설 명절 제수용품은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2월 20일까지는 월별 구매도를 50만원까지 높여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오로나민C 생기충전 캠페인 동아오츠카(대표: 양동영 사장)가 지난달 31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서울과 경기 권역 내 택배 기사를 대상으로 오로나민C를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오로나민C 생기충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업무가 늘어난 택배 기사에게 오로나민C를 통해 생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 "해외여행 신용카드 사용, 현지 통화 결제해야 수수료 절약"

# 해외여행 중 평소 갖고 싶어하던 가방을 발견한 A씨. 1000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했는데, 점원이 현지 통화결제와 신용카드 결제를 물어봐 원화를 선택했다. 귀국 후 카드대금 청구서를 보니 1050달러가 결제돼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해외원화결제수수료 50달러가 포함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를 위해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현

금(ICC) 차단을 신청하면 이같은 걱정을 사전에 덜 수 있다. 출국 전에는 카드 결제 알림 문자 서비스도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통지돼 위·변조나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에 해외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출국할 필요도 있다. 유

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결제 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데, 이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다를 수 있다. 해외 여행 중 카드를 사용할 때는 결제파장을 지켜야 한다. 해외 노점상 등에서는 카드결제를 이유로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간 뒤 위·변조하는 경우도 있다. 비밀번호 유출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와 비밀번호가 함께 유출돼 부정사용되면 곧장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 통신사 채무도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포함

앞으로 이동통신사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의 지난해 제2기 업무조치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 총 29건의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의 업무조치 제도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 2월 도입됐다. 임기는 2년으로 지난해 3월부터 2기 업무조치 5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금융위가 수용기로 한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생계형 채무인 통신회사 채무도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만간 신복위와 정보통신진흥협회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카드사만 제공해 오던 '신용카드 자동결제 알림서비스'는 모든 카드사로 확대되며 카드 발급시 신청자 동의가 있으면 카드사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소득 정보나 대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수익률 정보 제공 주기는 단축되고 서면 이외에 문자메시지 등 보다 편한 방법으로도 제공된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